

## 마태복음 19:28의 κρίνοντες에 대한 해석

김태섭\*

### 1. 들어가며

지금까지 신약학계에서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하여 여러 담론들이 진행되어왔다.<sup>1)</sup>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의 궁극적 운명이 ‘회복(restoration)인가 혹은 징계(condemnation)인가?’ 하는 논의는 신약시대 때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였다.<sup>2)</sup>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임하였다고 경고하면서도(살전 2:15-16),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피력하였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롬 11:25-27).

유대인 복음서 기자 마태 역시 유대비판적인<sup>3)</sup> 어조를 자신의 복음서에

\*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거룩한빛광성교회(예장통합) 부목사 및 경민대학교 시간강사. ktaesup@hotmail.com.

- 1) G. Stanton, *A Gospel for a New People : Studies in Matthew* (Edinburgh: T & T Clark, 1992), 247-55; Joel Kennedy, *The Recapitulation of Israel: Use of Israel's History in Matthew 1:1-4:11* (Tübingen: Mohr Siebeck, 2008), 25-215; Joel Willits, *Matthew's Messianic Shepherd-king: In Search of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Berlin: Walter de Gruyter, 2007), 181-219.
- 2) 참조, 오늘날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심을 위해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지도자들과 그들의 책은 다음과 같다. 키이스 인트레이터, 『그날이 속히 오리라』 (서울: 두란노, 2004); 송만석, 『지금은 예루살렘시대』 (서울: 두란노, 2005); 윈 형제, 『백투예루살렘』, 류웅렬 역 (서울: 홍성사, 2005); 최바울, 『백투예루살렘: 하나님의 마지막 글로벌 프로젝트』 (서울: 펴내기, 2005).
- 3) ‘반유대주의’(anti-Semitism)는 인종적 편견(偏見)으로부터 유래한 유대인에 대한 폄하, 비난, 폭력을 의미하지만, ‘유대비판주의’(anti-Judaism)는 인종적 편견이 아닌 종교적 신념의 차이에 근거한 교의적(敎義的) 비판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약 선지자들의 비판을 상기한다면, 양자의 분명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서 강하게 드러낸다(마 27:25).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단초(端初)를 복음서 곳곳에 암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마태복음 19:28이다.

ὁ δὲ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ὅτι ὑμεῖς οἱ ἀκολουθήσαντές μοι ἐν τῇ παλιγγενεσίᾳ, ὅταν καθίσῃ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ἐπὶ θρόνου δόξης αὐτοῦ, καθήσεσθε καὶ ὑμεῖς ἐπὶ δώδεκα θρόνους κρίνοντες τὰς δώδεκα φυλάς τοῦ Ἰσραήλ·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새 시대에는 나를 따르던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치/심판**(κρίνοντες)할 것이다.”

여기서 헬라어 분사 ‘κρίνοντες’는 긍정적 의미의 ‘통치’(統治) 또는 부정적 의미의 ‘심판’(審判)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통치’로 해석한다면, 마태가 비록 유대비판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의 나라로 재건되리라는 ‘회복’(restoration)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심판’으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한 결과 결국 ‘징계’(condemnation)를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태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궁극적 운명이 ‘회복’인지, 혹은 최종적 ‘징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양자의 해석 가운데, 본 소고(小考)는 마태복음 19:28의 ‘κρίνοντες’가 ‘통치’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칠십인역(LXX)에서 동사 ‘κρίνω’의 용례

일반 고전 헬라어 혹은 비(非)성서권 코이네 헬라어 문헌에서 ‘κρίνω’라는 동사는 ‘다스리다’(rule)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LSJ*가 밝히는 ‘κρίνω’라는 동사의 일반적인 의미들은 심판하다(judge), 고소하다(bring to trial/accuse), 정죄하다(condemn), 선택하다(choose), 결정하다(decide), 분리하다(separate), 구분하다(distinguish) 등이다.<sup>4)</sup>

νῦν δ' εἰς τοῦθ' ἤκει τὰ πράγματ' αἰσχύνης ὥστε τῶν στρατηγῶν ἕκαστος δις καὶ τρις κρίνεται παρ' ὑμῖν περὶ θανάτου, πρὸς δὲ

4) *LSJ*, “κρίνω”.

τοὺς ἐχθροὺς οὐδεὶς οὐδ' ἅπαξ αὐτῶν ἀγωνίσασθαι περὶ θανάτου  
τολμᾷ, ἀλλὰ τὸν τῶν ἀνδραποδιστῶν καὶ λωποδυτῶν θάνατον  
μᾶλλον αἰροῦνται τοῦ προσήκοντος·

그 수치스러운 제도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 와서, 장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들로부터 두 번 혹은 세 번 ‘죽음’에 대해 **비판(정죄)을 받았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단 한번 죽음을 무릅쓰고 적들과 싸울 용기를 내지 않으면서, 유괴범들과 강도들에게 어울리는 (수치스런) 죽음을 취하려고 하였다

(Demosthenes, *Philippica 1* 4.47 필자 번역)

물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칠십인역’(LXX)과 신약성경에서도 κρίνω의 이러한 ‘심판’ 혹은 ‘정죄’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κρίνω의 일반적인 의미 외에, 칠십인역은 해당 동사를 ‘통치’의 개념으로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예, 사 3:10; 시 2:10; 71:1-2; 121:4-5; 단 9:12; 마카비 1서 9:73; 솔로몬의 시편 17:26, 29).

καὶ συνάξει λαὸν ἅγιον οὗ ἀφηγήσεται ἐν δικαιοσύνῃ καὶ κρίνεῖ φυλὰς λαοῦ ἡγιασμένου ὑπὸ κυρίου θεοῦ αὐτοῦ καὶ οὐκ ἀφήσει ἀδικίαν ἐν μέσῳ αὐτῶν ἀύλισθηῖναι ἔτι καὶ οὐ κατοικήσει πᾶς ἄνθρωπος μετ'αὐτῶν εἰδὼς κακίαν γνώσεται γὰρ αὐτοὺς ὅτι πάντες υἱοὶ θεοῦ εἰσὶν αὐτῶν ... κρίνεῖ λαοὺς καὶ ἔθνη ἐν σοφίᾳ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그가 의(義)로 이끄실 거룩한 백성을 모으셔서 그의 주 하나님에 의해 거룩해진 백성의 지파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불의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며 불의를 아는 어떤 사람도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가 그들을 아실 것이다. (중략) 그가 백성들과 나라들을 그의 의로운 지혜로 **다스리실 것이다** (솔로몬의 시편 17:26-27, 29).

위에 인용된 솔로몬의 시편을 보면, κρίνω라는 동사가 2회에 걸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해당 동사를 ‘심판’ 혹은 ‘정죄’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매우 어색해진다. κρίνω의 목적어가 ‘불의가 더 이상 없는 거룩해진 백성’이기 때문에, 이 동사를 심판이 아닌 메시아의 의로운 ‘다스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칠십인역에서 κρίνω의 어의(semantic force)가 확장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히브리동

사 **טפף**의 영향 때문이다.

καὶ ἐγένετο ἐπαύτὸν πνεῦμα κυρίου καὶ ἔκρινεν τὸν Ἰσραὴλ καὶ ἐξῆλθεν εἰς πόλεμον πρὸς Χουσσαρσαθαίμ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쿠사르사타임  
 (구산리다사임)에 맞서 전쟁에 나아갔다 (삿 3:10).

וַתְּהִי עָלָיו רוּחַ יְהוָה וַיִּשְׁפֹּט אֶת-יִשְׂרָאֵל לְמַלְחָמָה  
 여호와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전쟁에 나아  
 갔다 (삿 3:10).

위 사례를 보면, 히브리어 동사 **טפף**이 헬라어 동사 κρίνω로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칠십인역에서는 **טפף**이 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6:5부터 마지막 스가랴 8:16까지 그 번역어로 κρίνω가 매우 빈번히 사용되었다(창 16:5; 18:25; 19:9; 31:53; 출 5:21; 18:13, 22, 26; 레 19:15; 민 35:24; 신 1:16; 16:18; 25:1; 삿 3:10; 10:2-3; 11:27; 12:7, 8-9, 11, 13-14; 15:20; 16:31; 룻 1:1; 삼상 4:18; 24:15; 슥 8:16 등).<sup>5)</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히브리어 동사 **טפף**이 ‘심판하다’라는 뜻(예, 민 35:24; 신 1:16; 16:18; 25:1 등) 외에 ‘다스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예, 삿 3:10; 10:2-3; 11:27; 12:7, 8-9, 11, 13-14; 15:20; 16:31; 룻 1:1; 삼상 4:18 등). 그리하여 칠십인역 이후로 헬라어 성서문학에 쓰인 κρίνω는 기존의 ‘심판하다’라는 뜻 외에 ‘다스리다’라는 뜻까지 어의가 확장되었다.<sup>6)</sup> 따라서 칠십인역에 익숙한 신약성경 저자들이 κρίνω라는 동사를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과 아울러 긍정적인 의미의 ‘통치’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게 되고, BDAG는 κρίνω의 신약성경 용례 가운데 특히 마태복음 19:28과 누가복음 22:30에서 그 분사형(分詞形)이 ‘통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sup>7)</sup>

5) **טפף**이 분사형 **טפף**(여성형: **טפפ**)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재판관’ 혹은 ‘사사’(土師)라는 명사의 뜻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칠십인역은 κρίνω의 분사형 κρίνων을 사용할 때도 있으나(예, 창 18:25; 삿 11:27 등), δικαστής 혹은 κριτής와 같은 명사로 해당 분사를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예, 출 2:14; 신 1:16; 16:18; 17:9, 12; 19:17, 18; 21:2; 25:2; 수 8:33; 23:2; 24:1; 삿 2:16-19 등. 참조, 삿 4:4에서 여성형 분사 **טפפ**의 경우에는 κρίνοῦσα로 번역하지 않고, 정동사 κρίνω를 사용하였다). **טפף**의 분사형 명사 **טפפ**의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칠십인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טפף**의 번역어로 κρίνω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참조, 때로 κρίνω의 강조형인 διακρίνω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 예, 출 18:16).

6) TDNT, “κρίνω”; J. Lust, E. Eynikel, and K. Hauspie, “κρίνω”, *English-Greek Lexicon of the Septuagint Part II*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6), 267-268.

7) BDAG, “κρίνω”.

### 3. 각 역본들의 해석

우선 해당구절의 주요 성경번역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번역은 원문에 대한 언어·해석적 과정이 반영된 결과물이고, 원어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독자들의 본문 이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은 마태복음 19:28의 ‘κρίνοντες’를 ‘심판’으로 번역하였다.

**마 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κρίνοντες)하리라”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개역개정』이 누가복음 평행본문(parallel passage)에서 똑같은 분사를 ‘통치’의 개념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눅 22:28-30**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κρίνοντες) 하려 하노라”

『개역한글판』과 『현대인의성경』 역시 ‘κρίνοντες’를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심판’으로,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다스림’으로 번역하였다. 한편, 『공동번역 성서』와 『표준새번역 개정판』 및 대다수의 영어성경(NRS, NIV, NAS, ESV, NLT 등)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해당 분사를 공(共)히 ‘심판’(judging)으로 번역하였다.<sup>8)</sup> 반면에 최근 들어 많이 읽혀지는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 역(譯)의 『메시지성경』(MSG)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에서 ‘κρίνοντες’를 ‘통치’(ruling)의 개념으로 해석하였다.<sup>9)</sup> 이처럼

8) 독일어성경(LUT) 역시 마 19:28과 눅 22:30의 ‘κρίνοντες’를 모두 ‘심판’(richten)으로 해석하였다. 참조, “Jesus aber sprach zu ihnen: Wahrlich, ich sage euch: Ihr, die ihr mir nachgefolgt seid, werdet bei der Wiedergeburt, wenn der Menschensohn sitzen wird auf dem Thron seiner Herrlichkeit, auch sitzen auf zwölf Thronen und **richten** die zwölf Stämme Israels”(Mt 19:28). “daß ihr essen und trinken sollt an meinem Tisch in meinem Reich und sitzen auf Thronen und **richten** die zwölf Stämme Israels”(Lk 22:30).

9) Matt 19:28(MSG): Jesus replied, “Yes, you have followed me. In the re-creation of the world, when the Son of Man will rule gloriously,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rule**, starting with the twelve tribes of Israel.”

Luke 22:28-30(MSG): “And you’ve stuck with me through thick and thin. Now I confer on you the royal authority my Father conferred on me so you can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역본들마다 ‘κρίνοντες’의 해석이 분분한 경향이 있는데, 우선은 이 분사를 양(兩)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28과 누가복음 22:30 모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언제 될 종말론적 상급에 대한 약속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고, 사용한 분사의 문법적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sup>10)</sup> 동일한 문맥에서 사용된 동일한 문법적 형태의 분사가 두 복음서에서 각각 상반된 뜻으로 번역되는 것에는 분명 아쉬움이 있다.

그리하여 우선 누가복음 22:29-30을 살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κρίνοντες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번역해야 자연스럽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κρίνοντες) 하려 하노라.”<sup>11)</sup> 누가복음 22:29에서 열두 제자들에게 약속된 ‘나라’(βασιλεία)는 ‘하나님나라’(the kingdom of God) 혹은 ‘하늘나라’(the kingdom of heaven)를 의미한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나라 혹은 하늘나라의 핵심개념이 ‘영역’이 아니라 ‘통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sup>12)</sup> 누가복음 22:29에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13)</sup> 따라서 뒤이어 등장하는 누가복음 22:30의 κρίνοντες는 ‘심판’이 아닌 ‘통치’의 뜻으로 해석해야 앞선 구절과 의미상 호응을 이룰 수 있다. 누가복음 22:30에서 κρίνοντες가 ‘통치’의 뜻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19:28에서도 해당 분사가 ‘통치’의 뜻으로 해석·번역되어야 할 명분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상기한 바와 같이 누가복음 22:30과 마태복음 19:28은 그 문맥이 서로 유사하고 두 본문 모두 동일한 문법적 형태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kingdom and be strengthened as you **take up responsibilities** among the congregations of God's people.”

- 10)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듯, 마 19:28과 눅 22:30은 예수말씀어록 Q에서 유래한 본문이다.
- 11) Luke T. Johnson, *The Gospel of Luke*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1), 345-346;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97), 769-770; Howard I. Marshall,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Exeter: Paternoster, 1978), 814-818; John Nolland, *Luke 18:35-24:53* (Dallas: Word Books, 1993), 1066-1067.
- 12) 이러한 이해는 Gustaf Dalman이 19세기 말에 제안한 이후로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하나님나라에 대한 개념이다. Gustaf Dalman, *The Words of Jesus: Considered in the Light of Post-biblical Jewish Writings and the Aramaic Language* (Edinburgh: T.&T. Clark, 1902), 94; 양용의, 『하나님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15-54.
- 13) Luke Johnson, *The Gospel of Luke*, 345; John Nolland, *Luke 18:35-24:53*, 1066.

#### 4. ‘최후심판’ 때의 역할인가? 아니면 ‘하나님나라’에서의 역할인가?<sup>14)</sup>

마태복음 19:28의 ‘κρίνοντες’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sup>15)</sup> 주지하다시피 헬라이어 분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순과거 분사가 ‘1회적인 동작’을 의미하고 현재 분사는 ‘동작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만약 마태가 ‘최후심판’이라는 1회적 사건을 의도했다면, 현재 분사가 아닌 단순과거 분사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마태는 단순과거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시제로 사용된 ‘κρίνοντες’는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 도래할 새 시대(ἐν τῇ παλιγγενεσίᾳ)에서 **지속적으로 행할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1회적인 사건으로 끝날 ‘최후심판’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통치’로 ‘κρίνοντες’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법적 고찰은 마태복음 19:28에서 ‘κρίνοντες’의 의미를 분별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현재 분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작의 반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란 바로 ‘문맥’(context)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분사의 시제(時制)만을 갖고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sup>16)</sup> 따라서 보다 선명한 결론을 위해,

14) 4번과 5번 내용은 필자의 소논문(김태섭, “성경을 통해 살펴본 오늘날 이스라엘 회복운동”, 『피어선신학논단』 3.2 (2014), 143-166) 가운데 일부(특별히 148-152 페이지)를 수정, 심화, 확대한 것임.

15) 참조, W. D. Davies and Dale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3 (Edinburgh: T&T Clark, 1997), 55 n.119.

16) 우선 분사가 명사적 용법(substantival participle)으로 쓰이면, 현재분사라 하더라도 동작의 지속이나 반복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ὁ βλέπων)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씀(마 5:28)이나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ὁ ἀπολύων)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마 5:32)에서 사용된 현재분사는 ‘반복적으로 보는’ 동작이나 ‘지속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꼭 전제하지 않는다. 이 본문들은 해당 행위를 단 한 차례 저지른다 하더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이다. 현재분사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 분사가 한정적 위치(attributive)에 있든 서술적 위치에 있든(predicate), 그 분사는 문맥에 따라 1회적인 동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동작의 지속이나 반복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은밀히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ὁ πατήρ σου ὁ βλέπων ἐν τῷ κρυπτῷ) 값아 주시리라”(마 6:4)는 말씀에 사용된 βλέπων은 분명히 1회적인 동작이 아닌, 하나님의 ‘지속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재분사는 동작의 지속이란 차원을 표지(標識)하게 된다. 반면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ἀκούοντες ἡσάν)”(갈 1:23)에 사용된 서술적 용법의 분사는 반복이나 지속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분사가 부사적으로 사용될 때에도 예외가 아니다. 분사가 시간, 방법, 원인, 조건, 양보(讓步, concession), 목적, 결과, 잉여-부가(附加, pleonastic), 부대상황, 간접화법 등을 표현하기 위

우리는 주변 문맥과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sup>17)</sup>을 살펴보면서 ‘κρίνοντες’를 지속적인 통치의 행위인지, 아니면 최후심판 때에 있을 1회적인 역할인지 확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9:28의 κρίνοντες를 해석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이 역할이 ‘최후심판에 행해질 것인가’, 아니면 ‘심판 이후 하나님 나라(하늘나라<sup>18)</sup>)가 이 땅에 온전히 완성될 때에 이뤄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κρίνοντες가 제자들이 최후심판 때에 맡게 될 역할을 의미한다면, 이는 ‘심판’의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고, 만약 심판 이후에 들어갈 완전한 하나님나라(천국)에서 제자들이 수행할 역할을 가리킨다면, 이는 ‘통치’의 뜻으로 해석해야 옳다. 왜냐하면 의인들에게만 허락될 하나님나라에서는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참조, 마 25:34).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 19:27-30의 배경이 되는 선행 본문(19:16-26)이 ‘하나님나라’(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19:16-26에서는 어떤 부자청년이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묻자, 예수님은 청년이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면 **하늘에서**(ἐν οὐρανοῖς) 보화가 있으리라고 약속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소유를 팔면, 대신에 하늘(οὐρανοί) 곧 하늘나라(천국)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sup>19)</sup> 뒤이어 나오는

---

해 종속절을 대신하여 사용되는데, 그 용도와 문맥에 따라서 1회적인 동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동작의 반복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빌라도가 그에게 다시 물어 말하기를(λέγων)”(막 15:4)에 사용된 현재분사는 부가적 용법(pleonastic)인데, 이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경우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든, 믿기만 한다면(πιστεύοντες) 받으리라”(마 21:22)에서 사용된 조건적 용법의 현재분사는 한 번의 믿음이 아닌 ‘지속적인 믿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κρίνοντες가 현재 분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통치’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부족한 감이 있고, 주변 문맥과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사의 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Daniel B. Wallace, *The Basics of New Testament Syntax* (Grand Rapids: Zondervan, 2000), 266-285 참조.

- 17) 주변 문맥(immediate context)을 넘어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마 13:36-43, 마 16:27-28, 그리고 마 25:31-46과 같이 최후심판과 관련된 마태의 본문들을 보면 재림하신 예수님만이 심판관으로 등장하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심판관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없다.
- 18) 주지하다시피 마태는 ‘하나님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라는 표현보다 ‘하늘나라’(天國,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란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일 뿐, 양자(兩者)는 마 19:23-24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 19) 마태복음에서 ‘물리적 하늘’은 οὐρανός의 단수형태를 사용하고, ‘영적인 하늘 세계’를 의미할 때에는 하늘나라(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의 경우와 같이 οὐρανός의 복수형태를 사용하는 뚜렷한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οὐρανός의 복수형태가 쓰여진 ‘하늘’에서(ἐν



19:27은 부자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 보상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다. “그런즉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하늘나라에서 주어진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은 무엇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9:28-30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상들은 앞선 부자청년 일화(19:16-26)와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주어질 보상, 즉 그들의 κρίνοντες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역시 부자청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οὐρανοί) 곧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받아 누리게 될 상급으로 해석돼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κρίνοντες는 최후심판 때의 1회적 역할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수행할 지속적인 통치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태복음 19:28의 κρίνοντες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마태복음 20:20-23에 이르러 더 확고한 지지를 얻게 된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아와 “당신의 나라에서”(ἐν τῇ βασιλείᾳ σου)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비록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부탁이긴 하지만, 20:23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와 함께 앉게 될 것’이란 생각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의 최측근 자리에 앉게 될지 모를 뿐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곳을 마가는 평행본문에서 “당신의 영광중에서”(ἐν τῇ δόξῃ σου, 막 10:37)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쓰는 데 반하여, 마태는 “당신의 나라에서”(20:21)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학자들이 곧잘 지적하듯이, 여기서 ‘당신의 나라’란 장차 임할 ‘하나님나라’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제자들이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개념은 19:28의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κρίνοντες하리라.”<sup>20)</sup> 그리하여 19:28과 20:21-23을 연계하여 이해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κρίνοντες하게 되는 것은 최후심판의 순간이 아닌 ‘당신의 나라’ 곧 장차

οὐρανοῖς) 받을 상급이란, 하늘나라(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한다. 마태복음에서 οὐρανόσ의 단·복수 용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J. Pennington, *Heaven and Earth in the Gospel of Matthew* (Leiden; Boston: Brill, 2007), 125-162 참조.

20) Gerd Theißen, “Gruppenmessianismus: Überlegungen zum Ursprung der Kirche im Jüngerkreis Jesu”, Gerd Theißen, ed., *Jesus Als Historische Gestalt: Beiträge Zur Jesusforschung*, Forschungen zur Religion und Literatur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273; Donald Hagner, *Matthew 14-28* (Dallas: Word Books, 1995), 580-581; Davies와 Allison, *Matthew* vol.3, 56, 84, 88.

도래할(완성될)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κρίνοντες는 심판이 아닌 ‘통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분사라는 κρίνοντες의 ‘시제’(時制)와 아울러 그 역할수행의 ‘시점’(時點)이 하늘나라(하나님나라)라는 사실은 이 분사를 제자들의 ‘다스림’으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단서(端緒)가 된다.

## 5. 구약의 SER(Sin-Exile-Restoration) 패턴<sup>21)</sup>과 이스라엘의 회개

마태복음이 유대비판적인 복음서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1:20-24; 12:38-45; 13:51-58; 15:1-20; 16:1-12; 21:23-46; 22:1-14; 23:1-38; 27:25 등 참고). 그리하여 몇몇 학자들은 유대비판적인 마태복음의 색채를 언급하면서, 마 19:28의 ‘κρίνοντες’를 긍정적인 ‘통치’의 의미가 아닌, 부정적인 ‘심판’의 의미로 해석해야 옳다고 주장한다.

In the end, the confidence in the future restoration of Israel will appear to be vain and completely misleading. The safe trust that was expressed so many times in Jewish tradition that in the end Israel will be saved by its God should be given up. The final gathering of all the tribes of Israel itself will be a day of judgement.<sup>22)</sup>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마19:28이 그려내는 이스라엘의 최종적 운명은 암울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12지파의 종말론적 회귀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약속대로 회복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거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 소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구약에 매우 조예가 깊은 인물인데, 구약의 선지서들은 배역한 이스라엘을 날카롭게 비판함과 동시에 압박한 심판을 예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1) ‘SER패턴’은 스탠튼(G. Stanton)이 자신의 책 *A Gospel for a New People: Studies in Matthew*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스탠튼이 ‘심판’을 ‘punishment’라는 단어가 아닌 ‘exile’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기에, 본 소논문에서도 그의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참조, G. Stanton, *A Gospel for a New People: Studies in Matthew*,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2004), 247-255.

22) 대표적으로 Jozef Verheyden, “The Conclusion of Q: Eschatology in Q 22,28-30”, A. Lindemann, ed., *The Sayings Source Q and the Historical Jesu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711.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예루살렘이 승냥이 굴이 되겠고,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주민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다(렘9:11). 그러나 이것이 결코 이스라엘의 최종적 운명이라고 결론짓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결국 사로잡혀 간 포로들이 그들의 고토(故土)로 다시 돌아올 것과 이스라엘의 재건, 그리고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맺게 될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다(렘30-33장). 이와 유사하면서 조금 더 극적(劇的)인 사례는 호세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호세아1:6-9에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호세아1:10-2:1에서는 예언의 어조(語調)가 180도 달라진다. 앞선 심판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토(故土)로 돌아올 것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이 선포된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sin) - 심판(exile) - 회복(restoration)’이란 패턴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모티프(motif)이다(예, 겔 19-21장과 36-48장; 호 11:12-13:16과 14:4-8; 암 9:1-10과 9:11-15; 율 1:2-2:11과 2:12-3:21; 습 1:2-3:8과 3:9-20 등).<sup>23)</sup>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이 유대비판적인 색채를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마19:28을 이스라엘의 ‘최종적 징계’로 해석해야 할 절박한 이유는 없다. 마태가 구약에 매우 익숙한 인물임을 전제할 때,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비록 역사적 심판(AD 70년의 성전파괴와 같은 역사적 심판-마22:7; 23:38; 24:15 참고)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회복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sup>24)</sup>

### 5.1.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당시의 이스라엘은 마태복음 4:16이 표현하듯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이었다.<sup>25)</sup> 그리하여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속이 필요한 상태’(sinfulness)이며(마 1:21), “잃어버린 양”(lost sheep)으로 묘사하고 있다(10:6).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23) 신 4:25-31; 32:1-43; 왕상 8:46-53; 시 106:1-48; 사 33; 겔 16:1-63; 34:1-31; 호 2:2-23; 14:1-8 등. O. Steck, *Israel und das gewaltsame Geschick der Propheten: Untersuchungen zur Überlieferung des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bildes im Alten Testament* (Neukirchen: Neukirchener, 1967), 323 이하 참조.

24) G. Stanton, *A Gospel for a New People: Studies in Matthew*, 232-255.

25) 여기서 ‘백성’으로 번역된 ‘λαός’은 마태복음에서 총 14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마태복음에서 줄곧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서적을 참고할 것. Tae Sub Kim, “Israel and the Universal Mission in the Gospel of Matthew”,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2012), 20-28; J. Robert and C. Cousland, *The Crowds in the Gospel of Matthew* (Leiden: Brill, 2002), 75-86.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redeemer 1:21)와 목자(shepherd 2:6; 26:31)로 오셨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은, 예수께서 죄악(sinfulness)과 상실(lost-ness)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약의 약속대로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서두의 족보(1:1-17)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운명 사이에 있는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sup>26)</sup> 주지하다시피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代)씩 총 3시기(時期)로 나뉘어져 있다. 결론인 17절에는 족보의 구조를 정리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유수(幽囚)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각의 이름들과 사건이 그 이전 시대의 종식(終熄)과 그 이후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첫 시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암묵적으로 그 이전 ‘원(原)역사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족장시대’의 시작을 상징한다. 그리고 다윗은 이전의 ‘족장시대’를 마감한 인물이자 이후 14대에 걸친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로 족보에 등장한다. 또한 바벨론 유수는 이전 ‘왕정시대’의 종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포로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처럼 족보의 구조 각 마디에 언급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벨론은 각각 이전 시대의 종언(終焉)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始作)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의 연장선에서 마지막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해한다면, 예수께서는 이전 ‘포로시대’를 종식하시고 새로이 이스라엘의 ‘회복시대’를 열어 가실 분이라는 기대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12지파의 귀환과 회복, 이스라엘의 회개, 종말론적 성전의 재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종말론적 언약갱신, 이스라엘 땅의 회복’ 등등 여러 가지 주제로 표현이 된다. 이들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는 ‘12지파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개 촉구’라는 2가지 중요한 회복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처음으로 요약하고 있는 마태복음 4:23-25를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예수께로 모여 들었다는 보고를 듣게 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원칙적으

26) Mervyn Eloff, “Exile, Restoration and Matthew’s Genealogy of Jesus ‘Ο ΧΡΙΣΤΟΣ’”, *Neotestamentica* 38:1 (2004), 75-87. 참조, Mervyn Eloff, “From the Exile to the Christ: Exile, Restor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Matthew’s Gospel”, Th.D. Thesis (University of Stellenbosch, 2002).

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국한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10:6; 15:24), 마태복음 4:25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의 각 지역에서 예수께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된다.<sup>27)</sup>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북서(갈릴리), 북동(데가볼리), 중앙(예루살렘), 남서(유대) 그리고 남동(요단 건너편)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순서와 지리적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마태복음 4:23의 지명들은 마태복음 2:20-21에 2번 등장하는 ‘이스라엘 땅’(Eretz Israel)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서술로 보인다.<sup>28)</sup>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마태는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을 고려할 때에, 당대의 이스라엘이 아닌, 곧잘 이스라엘의 ‘고토’(古土)에 대한 관심, 특히 12지파의 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예, 마가의 ‘수로보니게’ [막 7:26]라는 1세기 당시의 지명이 아닌 ‘가나안’이란 옛 표현을 사용[마 15:26], 가버나움이란 1세기 지명과 관련하여 ‘스블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부연하고 있는 점[마 4:13], 칠십인역이나 마소라본문과 달리 마태는 베들레헬을 구체적으로 ‘유다지파의 땅’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마 2:6] 등).<sup>29)</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4:25에서 그려진 ‘이스라엘 땅’은 고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거주하던 기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4:25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다시 모여든다는 신학적 메시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의 시대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도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에 빈번히 등장하는 ‘목자/양 모티프’(shepherd/sheep motif)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12지파의 회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마태복음 2:6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 2:6의 출처가 되는 두 구약본문, 즉 미가 5:2와 사무엘하 5:2의 문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재결합 혹은 회복(미 5:3; 삼하 5:1, 3)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마태복음 15:24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 받았다고 밝히는데, 학자들은 이 구절의 구약적 배경으로 흔히 에스겔 34장 혹은 예레미야 50:6을 지목한다.<sup>30)</sup>

27) 1세기의 데가볼리(Decapolis)는 주로 이방인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마 4:25가 데가볼리에서 예수께로 많은 무리가 나아왔다고 언급하는데, 왜 이들을 유대인들로 이해해야 하는지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김태섭,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αἱ διέξοδοι τῶν ὀσῶν”의 해석”, 『신약논단』 21:4 (2014), 908-913.

28) C. Cousland, *The Crowds in the Gospel of Matthew*, 58-61.

29) Gerhard Lohfink, *Wem gilt die Bergpredigt?: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Ethik* (Freiburg: Herder, 1988), 27-28.

이 두 구약본문들도 공히 흠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겔 34:11-16; 렘 50:17-20)을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구약적 배경들은 예수께서 흠어진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실 목자(牧者)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12제자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신다. 주지하다시피, 구약에서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sup>31)</sup> 특히 마태복음 19:28은 12제자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직접적으로 연관 짓고 있다. 따라서 12제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로 보낸다는 것은 마태복음 10:5-6의 선교 명령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sup>32)</sup>

## 5.2.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회개의 촉구

이상(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코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회복의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repentance)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다(사 44:22; 렘 3:6-18; 24:4-7; 31:1f; 32:36-41; 50:4-7, 17-20; 호 14:1-9[MT 14:2-9]; 암 5:4, 6, 14-15; 단 9:3-19 참조, 신 30:1-3; 회년서 1:15-16a; 23:26). 이러한 사실은 회개가 이스라엘 회복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됨을 의미한다.<sup>33)</sup> 이와 유사한 관점을 마태복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마 4:12-17).

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으되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30) Young S. Chae, *Jesus as the Eschatological Davidic Shepherd: Studies in the Old Testament, Second Temple Judaism, and in the Gospel of Matthew* (Tübingen: Mohr Siebeck, 2006), 215.

31) Scot McKnight, “Jesus and the Twelve”, *BBR* 11:2 (2001), 203-231.

32) 12제자를 ‘파송하는 것’과 12지파를 ‘모으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마 23:37-38상을 참고한다면, ‘보냄’과 ‘모음’은 서로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3) E. P. Sanders, *Jesus and Judaism* (London: SCM, 1985), 106-108.

앞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sup>17</sup>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12-17을 하나의 유기적인 단락으로 본다면,<sup>34)</sup> ‘회개’를 촉구하는 마태복음 4:17과 ‘회복’을 예고하는 이사야 9:1-2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태복음 4:17에 앞서 마태복음 4:15-16에 인용된 이사야 본문은 B.C. 732년에 앗수르의 디글랏벨레셀 3세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의 영토 일부, 즉 갈릴리 지역의 납달리와 스블론 지파의 기업이 앗수르의 속주로 전락한 정치적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왕하 15:29).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1-7을 통해 이러한 수치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기업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사야 인용(마 4:15-16) 직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회개 촉구’(마 4:17)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회개’를 선포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회개에 실패한다. 마태복음의 예수께서는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 같은 유대의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음(마 11:21-24)과, 동시대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 세대’ (ἡ γενεὰ αὐτῆς<sup>35)</sup>)가 그분의 선포에 반응하지 않는 강박함을 지적하고 있다(마 11:16-19; 12:39-41). 결국 마태복음 27:25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πᾶς ὁ λαός)이 회개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3:37-38에 예고된 탄식처럼, 예수님의 회복사역과 그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닫는 듯하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34) Krentz가 마태복음을 1:1-4:16, 4:17-16:20 그리고 16:21-28:20로 삼분(三分)한 이후로 (tripartite division) 몇몇 학자들은 4:17을 4:12-16과는 별개의 문맥으로 간주하였다. 참조, E. Krentz, “The Extent of Matthew’s Prologue: Toward the Structure of the First Gospel”, *JBL* 83:4 (1964), 409-414. 이에 대한 반론은 Frans Neirynck, “*AIO TOTE HPEATO* and the Structure of Matthew”, *ETL* 64:1 (1988), 27-32에 잘 나와 있다.

35) Konradt와 같은 학자들은 ‘이 세대’가 지도자들만을 지칭한다는 입장이다. “Dieses Geschlecht fungiert bei Matthäus nicht als Kollektivbezeichnung für Israel bzw. für die jüdischen Zeitgenossen Jesu. In 11,16-19; 12,38-45; 16,1-4; 23,34-36 ist die Rede von diesem Geschlecht auf die Autoritäten bezogen; sie sind für Matthäus das böse und ehebrecherische Geschlecht.” M. Konradt, *Israel, Kirche und die Völker im Matthäusevangelium* (Tübingen: Mohr Siebeck, 2007), 262-263. 그러나 마 17:17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대’에는 타락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에게만 국한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 5.3.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개와 마 19:28에 대한 이해

마태복음 23:38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는 예수님의 탄식과 같이 이스라엘의 배척은 결국 성전파괴와 같은 **역사적** 심판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종말적)** 운명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23:39에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여운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λέγω γὰρ ὑμῖν, οὐ μὴ με ἴδῃτε ἀπ’ ἄρτι ἕως ἂν εἴπητε· εὐλογημένος ὁ ἐρχόμενος ἐν ὀνόματι κυρίου.” 이 구절은 『개역개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번역하였다. 얼핏 보기에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sup>36)</sup>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마태복음 23:39의 종속절은 시간부사절(temporal clause)이지 결코 조건절(conditional clause)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스라엘 선교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마태복음 10:22-23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심할 것이라는 기대는 마태의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한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23:39의 타당한 해석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라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마태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회심은 재림의 조건이 아닌, **재림의 결과**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외침을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패배의 울부짖음’(the cry of defeat)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울리히 루즈(Ulich Luz)에 따르면, 이 구절은 복음을 완강히 거부한 이스라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의 패역과 패배를 인정

36) 참조, Davies and Allison, *Matthew* vol.3, 323-324.



하는 ‘탄식’(歎息)이지 결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다.<sup>37)</sup> 그러나 이는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마태복음 23:39는 시편 118편 26절의 인용인데, 이미 마태는 마태복음 21:9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마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외침 속에 시편 118편 26절을 삽입하였다. 그렇다면, 같은 시편의 말씀을 불과 두 장 뒤, 곧 마태복음 23:39에서 재차 인용하면서, 그것을 ‘패배의 부르짖음’으로 둔갑시켰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 마태복음 21:9의 환호성을 상기한다면, 마태복음 23:39의 찬송 역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외침으로 보아야 한다.<sup>38)</sup> 따라서 마태복음 23:39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란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태가 이스라엘의 종국적 회심을 기대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약의 전통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는 ‘12지파의 재건’과 같은 이스라엘 회복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19:28과 23:39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마태복음 23:39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개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28에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 모인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회개(마 23:39)로 인한 회복의 결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28에 사용된 ‘κρίνοντες’를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審判)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의 ‘통치’(統治)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새 시대에는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치(κρίνοντες)하리라.”

## 6. 맺으며

본 소고(小考)는 마태복음 19:28에서 헬라어 분사 ‘κρίνοντες’를 ‘심판’(judging)이 아닌 ‘통치’(ruling)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태복음 19:28의 주변 문맥(immediate context)에서 보면, κρίνοντες의 수

37) Ulich Luz, *Matthew 21-28*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5), 163-164.

38) Warren Carter, “Matthew 23:37-39”, *Interpretation* 54:1 (2000), 66-68.

행 시점은 최후심판 때 맡게 될 역할이 아닌, 종말적으로 완성될 하늘나라에서 제자들이 수행할 과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나라는 최종적으로 의인들에게만 허락될 것이기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다(참조, 마 25:34). 따라서 제자들의 κρίνοντες는 하늘나라에서의 ‘통치’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마태복음 23:39는 재림 때에 이스라엘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주님’(the Lord)으로 인정할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암시하고 있다. 유대 전통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는 ‘12지파의 재건’과 같은 이스라엘 회복(restoration)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태복음 23:39는 이스라엘의 회개로, 마태복음 19:28은 12지파의 나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스리는 비전(eschatological vision)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누가복음 22:30에서와 같이 마태복음 19:28의 헬라이어 분사 ‘κρίνοντες’는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의 ‘통치’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Keywords)

이스라엘의 회복, 마 19:28, 12지파, 재림, 통치.

The Restoration of Israel, Matthew 19:28, The Twelve Tribes, Parousia, Ruling.

(투고 일자: 201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5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3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태섭,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αἱ δὲ ἕξοδοὶ τῶν ὀδῶν”의 해석”, 「신약논단」 21:4 (2014), 895-924.
- 송만석, 『지금은 예루살렘시대』, 서울: 두란노, 2005.
- 양용의, 『하나님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 원 형제, 『백투예루살렘』, 류응렬 역, 서울: 흥성사, 2005.
- 최바울, 『백투예루살렘: 하나님의 마지막 글로벌 프로젝트』, 서울: 퍼내기, 2005.
- 키이스 인터레이터, 『그날이 속히 오리라』, KIBI 역, 서울: 두란노, 2004.
- Carter, W., “Matthew 23:37-39”, *Interpretation* 54:1 (2000), 66-68.
- Chae, Y. S., *Jesus as the Eschatological Davidic Shepherd: Studies in the Old Testament, Second Temple Judaism, and in the Gospel of Matthew*, Tübingen: Mohr Siebeck, 2006.
- Cousland, J. R. C., *The Crowds in the Gospel of Matthew*, Leiden: Brill, 2002.
- Dalman, G., *The Words of Jesus: Considered in the Light of Post-biblical Jewish Writings and the Aramaic Language*, Edinburgh: T. & T. Clark, 1902.
- Davies, W. D. and Allison, D. C., *Matthew* vol.3, Edinburgh: T. & T. Clark, 1997.
- Eloff, M., “Exile, Restoration and Matthew’s Genealogy of Jesus ‘Ο ΧΡΙΣΤΟΣ’”, *Neotestamentica* 38:1 (2004), 75-87.
- Eloff, M., “From the Exile to the Christ : Exile, Restor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Matthew’s Gospel”, Th.D. Thesis, University of Stellenbosch, 2002.
-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7.
- Green, J. B.,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97.
- Hagner, D. A., *Matthew 14-28*, Dallas: Word Books, 1995.
- Johnson, L. T., *The Gospel of Luke*,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1.
- Kennedy, J., *The Recapitulation of Israel: Use of Israel’s History in Matthew 1:1-4:11*, Tübingen: Mohr Siebeck, 2008.
- Kim, T. S., “Israel and the Universal Mission in the Gospel of Matthew”,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2012.
- Konradt, M., *Israel, Kirche und die Völker im Matthäusevangelium*,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Krentz, E., “The Extent of Matthew’s Prologue: Toward the Structure of the First Gospel”, *JBL* 83:4 (1964), 409-414.
- Lohfink, G., *Wem gilt die Bergpredigt? :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Ethik*, Freiburg: Herder, 1988.
- Lust, J. Eynikel, E. and Hauspie K., eds., *English-Greek Lexicon of the Septuagint Part II*,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6.

- Luz, U., *Matthew 21-28*,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 Marshall, H. I.,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Exeter: Paternoster, 1978.
- McKnight, S., “Jesus and the Twelve”, *BBR* 11:2 (2001), 203-231.
- Neiryneck, F., “*ΑΠΟ ΤΟΤΕ ΗΡΞΑΤΟ* and the Structure of Matthew”, *ETL* 64:1 (1988), 21-59.
- Nolland, J.,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5.
- Nolland, J., *Luke 18:35-24:53*, Dallas: Word Books, 1993.
- Pennington, J., *Heaven and Earth in the Gospel of Matthew*, Leiden; Boston: Brill, 2007.
- Sanders, E. P., *Jesus and Judaism*, London: SCM, 1985.
- Stanton, G., *A Gospel for a New People : Studies in Matthew*, Edinburgh: T & T Clark, 1992.
- Steck, O. H., *Israel und das gewaltsame Geschick der Propheten: Untersuchungen zur Überlieferung des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bildes*, Neukirchen: Neukirchener, 1967.
- Theißen, G., “Gruppenmessianismus: Überlegungen zum Ursprung der Kirche im Jüngerkreis Jesu”, Theißen G., ed., *Jesus Als Historische Gestalt: Beiträge Zur Jesusforschung, Forschungen zur Religion und Literatur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 Verheyden, J., “The Conclusion of Q: Eschatology in Q 22,28-30”, Lindemann A., ed., *The Sayings Source Q and the Historical Jesu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 Wallace, Daniel B., *The Basics of New Testament Syntax*, Grand Rapids: Zondervan, 2000.
- Willitts, J., *Matthew’s Messianic Shepherd-king: In Search of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Berlin: Walter de Gruyter, 2007.

<Abstract>

## The Meaning of κρίνοντες in Matthew 19:28

Tae Sub Kim  
(Kyungmin College)

In Matthew, when Peter asks Jesus about the reward that the disciples will receive for having left everything to follow him, Jesus answers, “Truly I tell you, at the age of regeneration, when the Son of Man is seated on the throne of his glory,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sit on twelve thrones, *judging/ruling* (κρίνοντες) the twelve tribes of Israel”(19:28). Among the issues revolving around this verse, the translation of κρίνοντες has generated much debate, since this term can be translated either with a common forensic meaning to ‘judge’ or in a broader sense to ‘rule’ as with its usage in the LXX(cf. LXX Jdg 3:10; Psa 2:10; 71:1-2; 121:4-5; Dan 9:12; 1Mac 9:73; Pss. Sol. 17:26, 28).

In regarding this issue, Luke 22:29-30 is particularly illuminating: “I confer on you, just as my Father has conferred on me, a kingdom, so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nd you will sit on thrones κρίνοντες the twelve tribes of Israel.” There is a broad consensus among Lukan scholars that the disciples’ κρίνοντες of Israel indicates their eschatological rule over Israel. This understanding of the κρίνοντες opens up the possibility that the same participle in its parallel passage of Matthew 19:28 also has the same sense of ‘governing’.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uthority to judge in the parable of the last judgement(Mat 25:31-46) is limited to the king, namely, the Son of Man alone. The same is also true in Matthew 13:36-43 and 16:27-28. There is no mention of the disciples for whom the judgement of Israel is set apart. This observation makes it less likely that ‘κρίνω’ in 19:28 would point to the judicial action of the disciples in judging(condemning) the twelve tribes at the parousia. Rather, the fact that the disciples are chosen as the legitimate shepherds (leaders) of Israel in 10:5-6 implies that their κρίνοντες of the twelve tribes can be better understood as their eschatological ruling than their judging of Israel.

Given that a present participle, when representing an adverbial clause,

indicates a continual action, the κρίνοντες in question characterizes the disciples by their act of continued ruling in the kingdom of God rather than an one-off judgment of their compatriots at the parousia. Furthermore, it needs to be stressed that Matthew expects Israel to recognize Jesus as the Lord at his return (Mat 23:39). This prophecy certainly sheds positive light on the fate of Israel in Matthew, since the nation's repentance has often been seen as a prerequisite for its restoration. It can be, then, concluded that the First Gospel anticipates the eventual restoration of Israel in the twelve-tribal league ruled by the Son of Man and his disciples when the kingdom of God comes to its full manifestation at the eschaton. Therefore, the participle κρίνοντες in Matthew 19:28 needs to be translated as to 'rule' in a positive sense.